

2022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은 우주에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릴 때,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숨이신 그 영을 호흡하고,
똑같은 영적인 음료,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 곧 참떡이자 하늘에 속한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 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그분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단순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하고,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해야 한다.

성경 육십육 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해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메시지 1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성경: 민 6:22-27, 고후 13:14, 계 22:1-2

- I.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며,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여 우리의 누림이 된다.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가정 행정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이다 — 담전 1:3-4, 3:15, 롬 12:5, 엡 1:10, 3:8-9, 2:10.
 - B.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믿는 이들을 신화(神化)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화’하셨고, 그런 다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하신다.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 II.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본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A.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근거한 것이다 — 민 6:24.
 - 1.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비교 엡 1:3). 아버지는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비교 요 17:11, 15).
 - 2.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1). 이것은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다. 이어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5).
 - 3.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 안에 지켜지고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는 그러한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 B.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들에 근거한 것이다 — 민 6:25.

1.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려 하실 때 사가라는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선언하였다. ‘돋는 해’는 신성한 삼일성 중에서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체 되심이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 마 4:16, 요 8:12.
 2. 민수기 6장 25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를 의미한다. 우리를 비추시는 얼굴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이다 — 벧후 1:16-18, 마 17:1-2.
 3. 민수기 6장 25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점이 함께 더해질 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 16, 17절의 말씀과 일치한다.
 4.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으며,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고후 13:14.
- C.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그 영에 근거한 것이다 — 민 6:26.
1.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신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지만(엡 4:30),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대해 기뻐하실 것이며,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며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III.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A.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시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 민 6:24, 시 36:8-9.
- B.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기쁨인 것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 민 6:25.
- C.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의 강이신 성령의 교통이다 — 민 6:26.

IV.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요 1:17, 고전 15:10),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요일 4:8, 16),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 고후 13:14.

- A.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고후 1:12, 4:15, 6:1, 8:1, 9, 9:8, 14, 12:9.
- B.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신다.
 1. 교회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다.
 2.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이 곧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신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다.

1.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한 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신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2.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세 단계이다. 곧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며, 교통은 은혜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4.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에서 가리키듯이,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내적으로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반드시 매일 누리며 이러한 삼일 하나님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복이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 고후 13:14, 갈 3:14, 창 12:2, 빌 1:25, 계 1:2, 9-12.

V. 새 예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 계 22:1-2상.

- A.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곧 어린양—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 B. 등이신 어린양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춤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게 하실 것이다 — 계 21:23, 22:5.
- C. 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신다.
- D. 새 예루살렘의 길은 순금이고(계 21:21),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22:1). 금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다.
- E.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성—아버지와 아들과 영—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백성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시어 그들의 영원한 복이 되신 것이다.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 비교 계 21:3, 12, 14, 22, 22:1-2.

VI.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실망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지도 모른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 중의 허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재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생활 안에

있는 것도 실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과 몫이시다. 그분을 복으로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갖고,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안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이것이 우리의 복이신 삼일 하나님이다.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11장, 98-99쪽.

메시지 2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성경: 엡 3:14-19, 아 1:2-3, 3:6, 4:7, 15, 6:4, 8:6-7, 계 19:7, 21:2

I.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 요 3:29, 마 25:6, 계 19:7, 21:2, 22:17.

- A.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로맨스에 빠져 계셨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계 22:17.
- B.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막 12:30, 엡 3:14-19.
- C.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고,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 아 1:2-3, 8:14.
 - 1. 성경은 로맨틱한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한다 — 아 4:7.
 - 2.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이때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 아 1:2-3.
 - 3. 전체적으로 성경은 신성한 구애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심을 본다 — 고후 11:2.
- D.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분께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이 아가에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 사이의 사랑의 그림을 본다 — 아 1:2-4, 고후 5:14-15, 요 14:21, 23.
 - 1. 아가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함”이다 — 아 1:2.
 - 2. 아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을 시적 형식으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 — 아 2:4, 6:3, 7:11-12, 8:5-6, 14.

II. 아가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과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관계를 본다.

- A.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될 것이다 — 고후 5:14-15, 3:18.
- B.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사랑스러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생명이 자라면서 계속 변화된다 — 아 1:2-3, 4하, 9, 12, 15, 2:2, 14, 3:6-7, 4:7, 12-15, 6:4, 10, 13상.
- C. 사람이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며 점유된다 — 딤후 6:10-11, 딤후 3:2-4, 4:8, 10상, 딤후 1:8.
 - 1.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 —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고전 2:9 각주 1)

2.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고, 그분께 열어 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 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영한 동번 찬송가 477장 2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66장 2절).

III.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 아 6:4상.

- A. 그리스도의 연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럽다.
- B.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호처가 된다 — 비교 창 2:8-12, 18-24, 고전 3:9-12.
- C.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면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곧 하늘에 속한 성소의 내실 안에서 살고 있다 — 아 4:8.
- D.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 — 계 2:4, 요 14:20-21, 23, 엡 3:17.
 1.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 요일 4:19, 8, 16.
 2.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성한 로맨스의 모든 방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아 1:2-3, 2:14, 4:8, 6:4, 계 21:9-10.
- E.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자라 성숙하여 건축되는 것이다 — 엡 4:12-16.
 1.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 엡 4:16.
 2. 몸의 건축은 유기적인 것이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 엡 4:15.
 3.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엡 5:25-32)인데, 궁극적으로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2-3, 16, 22.

IV.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슬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한다 — 아 6:13.

- A.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 준다 — 계 21:2, 22:17.
-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아 8:5-6.

메시지 3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8:2, 10, 6, 11, 28-29, 12:1-2

I. 이기는 이가 되는 열쇠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로마서 8장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다 — 롬 7:24-8:2, 28-29, 시 105:4.

- A.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고, 로마서 8장은 ‘영(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어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된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다 — 롬 8:4, 9-10, 16, 고전 6:17, 딤후 4:22.
- B.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인도한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 롬 8:2, 28-29, 12:1-2, 11, 빌 1:19.

I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A.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 엡 1:3-5.
- B.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어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살아 낼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 C. 스가라서 12장 1절은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 1. 사람의 영은 하늘들과 땅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 엡 2:22, 비교 딤후 4:22.
 - 2.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 D.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우주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사 66:1-2, 요 14:23, 15:4.
- E.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다 — 엡 3:14-17.
- F.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칙, 곧 자동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 하나이다 — 롬 8:2-3, 10-11, 34, 16.
- G.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킨다 — 비교 출 30:22-25, 빌 1:19, 고전 15:45하.

1.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영’은 동격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영께서 하나이심을 가리킨다 — 롬 8:9.
 2.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은 그 영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삼일 하나님의 셋 모두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 롬 8:9, 11, 2.
 3.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은,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과 도달하심과 적용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4.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용기(容器)이다 — 고후 4:7.
- H.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시어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헬라어로 ‘조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신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는 위대한 계시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우리의 생각은 조에가 된다.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통해 조에는 우리의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전 존재에서 조에의 사람들이 되어, 조에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계 21:6, 22:1-2, 14.
- I. 궁극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음 시대로 안내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과 우주의 중심 초점이 로마서 8장에 있다.

III. 로마서 8장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다 — 롬 8:2, 10, 6, 11, 28-29.

- A.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전기에 비유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전기’의 법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협력을 해야 한다 — 골 4:2, 엡 6:17-18, 살전 5:17, 비교 마 24:27(각주 1의 마지막 두 문장 참조).
- B.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계속 접촉하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용한다 — 히 11:1, 5-6, 고후 4:13, 마 8:3, 15, 9:20-21, 29, 14:36, 17:7, 20:34, 요 4:23-24, 빌 2:12-13, 롬 8:2, 4, 6, 13-16, 23, 살전 5:16-18.
- C.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누릴 것이다 — 왕하 19:30, 사 37:31, 마 6:6, 시 119:15.
 1.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한다. 다윗은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다(시 27:4). 이처럼 다윗은 내적으로 빛 비춤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2.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다(영한 동변 찬송가 10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24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골 2:6-7상.

3.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동되고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4.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에도 그분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 뵤전 4:10-11, 고후 2:17, 13:3.

D. 기도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기’를 사모한다고 말한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1.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다시 들려드리는 것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시 27:8)
2. 우리가 하나님을 실지로 만지고 접촉하고 흡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말씀하심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 요 15:7.
3. 우리의 기도의 첫째 방면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면서 일에 대한 그분의 부담을 주시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런 다음 우리의 기도의 둘째 방면은 일에 대한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기도의 목적을 수행한다 — 사 62:6-7, 45:11, 겔 22:30, 단 9:2-4, 삼상 12:23, 고전 3:9, 고후 6:1상.
4. 여쭙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주 여호와께 여쭙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다(삼상 22:10, 23:2, 4, 30:8, 삼하 2:1, 5:19, 23). 하나님께서 신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삼하 7:18)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25하절)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좋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27절)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E.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고,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 롬 10:12-13, 창 13:18, 살전 5:17, 엡 6:17-18, 빌 4:5-7, 12-13, 시 62:7-8.

IV. 우리가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다 —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A.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 편에 서고, 육체와 협력하며, 육체에 찬성하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영의 편에 서며, 영과 협력하고, 영에 찬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말 2:15-16.
- B.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하여 생명과 평안의 내적 감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복음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포로였다.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는 자신의 바깥 환경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안식’(고후 2:13)이 있는지의 여부에 통제받았다. 그의 존재에서 그의 영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으며, 그는 그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았다(고전 2:15, 롬 8:16, 고전 6:17, 고후 2:12-14, 7:5-6).
- V. 궁극적으로,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ی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 롬 8:2, 28-29, 12:1-2, 11:36, 16:27, 빌 1:19, 비교 갈 1:15-16, 2:20, 4:19, 26-28, 31.

메시지 4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성경: 요 20:22, 6:33, 57, 고전 10:3-4, 계 2:7, 17, 3:20

I.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20:22.

A.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또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이처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1:29, 20:22.

1.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14장 16절과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과 8절,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2.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20:22, 14:19-20, 15:4-5.

3.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에 넣어 주셨다.

4.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것은 이 영이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숨이다.

B.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다 — 고후 3:6, 17, 요 20:22.

1.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들이칠 수 있는 거룩한 숨이 되셨다 — 요 1:29, 20:22.

2.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과 어린양과 나무와 숨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은 표현을 위해 있고, 어린양은 구속을 위해 있으며, 나무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있고,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있다 — 요 1:1, 29, 10:10하, 14:19, 15:1.

C.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오직 숨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 갈 3:2-3, 14, 빌 1:19, 계 2:7.

II.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음료,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 — 고전 10:3-4.

A.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영적인 음료는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킨다.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물은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 — 출 17:6, 요 7:37-39, 고전 12:13.

B. 영적인 음료인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 고전 10:4, 요 14:20, 고후 1:9.

- C.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이것은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주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조성 성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 고전 10:4, 골 3:4, 10-11.

III.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다 — 딤후전 1:4, 요 6:35, 41, 57, 창 1:26.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6:33.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조성을 바꾸시는 것이다 — 출 16:14-15, 요 6:27, 32, 35.
- C.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떡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떡, 생명의 떡, 살아 있는 떡, 참떡,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 요 6:32-33, 35, 41, 48, 50-51.
- D.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 있는 떡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기 원하신다 — 요 6:33, 35, 51.
1. 생명의 떡은 음식의 형태로 된 생명 공급이다 — 요 6:35.
 2.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 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 있음을 가리킨다 — 요 6:35, 51.
- E.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 엡 3:17상, 요 6:57.
1. 성경에 있는 ‘영적 식사’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 요 6:57, 고전 10:3, 계 2:7, 22:14.
 2.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접촉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조성이 된다 — 창 2:16-17.
 3.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요 6:56-57.
 4. 먹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는 길이다 — 창 1:26, 2:9, 요 6:51상, 53-57.
 5.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음식은 사실상 우리가 된다. 이것은 연합의 문제이다 — 고전 10:17.
 6.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할 때 발생하는 일로 예시된다 — 요 6:57.
 7. 우리는 우리가 먹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 F.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음식 공급이신 주님을 합당하게 먹는 데로 회복되었다. 그들은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실 뿐 아니라 풍성으로 가득한 잔치이신 그분을 먹는다 — 계 2:7, 17, 3:20.

메시지 5

에베소서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성경: 엡 1:3-14, 2:18, 3:16-19, 4:4-6, 5:19-20, 6:10-11, 17

I.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 안으로 그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13:14.

- A.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심을 계시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 롬 8:2, 6, 10-11.
- B.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일해 넣으신다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 — 시 36:8-9.

II.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의 골격이다. 성경 전체, 특별히 에베소서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만 모든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 요소로 하여 구성되었다.
- B.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에베소서의 심오함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책의 각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엡 1:3-14, 2:18, 3:16-17상, 4:4-6, 5:19-20, 6:10-11, 17.

II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산출과 존재와 성장과 건축과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의 계시 전체는 신성한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 주는 신성한 분배로 구성된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중대한 초점은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 주는 신성한 분배이다.

- A. 에베소서 1장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지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영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그들에게 도장 찍으시어, 그리스도의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의 형성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셨는지를 밝혀 준다 — 엡 1:3-14, 18-23.
 - 1. 에베소서 1장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를 계시한다.
 - 2. 아버지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해 주고(엡 1:3-6), 아들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말해 주며(7-12절), 영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목적의 적용을 말해 준다(13-14절).
 - 3.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은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를 포함한다. 삼일 하나님의 삼중 분배는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전달로 완성되고 완결된다 — 엡 1:15-23.
- B. 에베소서 2장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모든 믿는 이,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엡 2:18.
 - 1. 이것은 이 셋이 동시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며, 심지어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과정을 거치신 후에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분이시요 적용이신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원이신 분이시요 우리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3.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과정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의 분배로 지어진 시이다 — 엡 2:10.
 4. 걸작품을 산출하는 아버지의 분배와, 새사람을 산출하는 아들의 분배와, 우리를 한 몸 안에서 아버지께 데려가는 그 영의 이끄심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엡 2:10, 15-16, 21-22.
- C.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믿는 이들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즉 그들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기를 기도하며,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일의 절정이다 — 엡 3:16-19.
1.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며, 아들은 목표이시고, 삼일 하나님의 충만은 결과이다.
 2. 셋 각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행하신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 비고 마 12:28.
- D. 에베소서 4장은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이신 분, 곧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시어 결과적으로 몸의 모든 지체가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할 수 있는지 묘사한다 — 엡 4:4-6.
1.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께서 발전하시기 위한 영역이다.
 2.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는 아들과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영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3. 이 절들은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네 인격이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된 것을 계시한다. 이처럼 삼일 하나님과 몸은 하나 안의 넷이다.
- E. 에베소서 5장은 믿는 이들에게 영 하나님의 노래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양하라고 권유하며, 또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유한다 — 엡 5:19-20.
1.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 엡 5:2, 8.
- F.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고, 그 영의 검을 사용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가르친다 — 엡 6:10-11, 17.
1.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시고, 아들 안에 실재화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입는 전투 장비이시며, 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검이다.
 2. 이렇게 믿는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
- IV. 성경 육십육 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해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 계 11:15.

메시지 6

주님께 열려 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성경: 창 2:7, 롬 9:21-23, 고후 4:7, 딤후 2:20-21

I.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째 단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다 — 창 2:7.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롬 9:21-23, 고후 13:14.

1.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고후 4:7.

2.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으로 이루어진다 — 딤후 2:20-21.

3. 하나님은 그릇들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 — 롬 9:23, 고후 3:18, 4:6-7.

a.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 롬 9:15-16, 18.

B. 바울의 열네 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릇들이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 두는 것임을 보여 준다 — 고후 3:16.

a.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없다 — 엡 3:17.

b.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 고후 13:14.

2.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 막 12:30, 요일 4:16-21.

a.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으며,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누린다.

b.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 엡 3:17.

c.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 갈 2:20.

3.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계속 열어 두기를 선택합니다.”

a. 이러한 합당한 기도, 더욱 깊은 기도, 참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려 있게 한다 — 엡 3:17-19.

- b.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살아 있고 열린 그릇이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울 길을 얻으실 것이다 — 엡 3:14-18.
- c.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 엡 3:19.

I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2, 6, 10-11, 엡 3:16-17상.

- A.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조금씩 날마다 받아들여야 되, 천천히, 한결같이, 거듭거듭 받아들여야 한다 — 고후 13:14, 마 6:11, 시 68:19.
 - 1. 우리 안에 단 한 번에 성취되는 영적인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 우리 신체의 생명에서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거듭 반복되어야 한다 — 요 6:57하, 4:14, 고전 10:3-4.
 -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조금씩 주어진다.
-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결같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덜 특별하고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다 — 골 1:27, 3:4, 엡 3:16-17상.
- C. 하나님께서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믿는 이들로써 우리의 생활 또한 조용하고 차분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단순하게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한다 — 롬 8:6, 살전 5:23, 살후 3:16.
- D.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 마 6:11, 32-34, 24:40-41.
- E.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믿음으로 체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하기 원하신다 — 엡 3:17상, 히 11:1.
- F.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이 되며, 우리의 영성은 극적인 것이 전혀 없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이 될 것이다 — 롬 8:4, 6, 갈 5:22-23.

III. 신성한 분배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한다 — 딤후 1:4, 엡 3:9.

- A. 그리스도, 그 영,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 엡 3:16-17상.
- B.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은 기적적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딤후 1:4, 엡 3:9.
- C. 거듭남은 가장 큰 기적이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거듭남은 정상적이지만 기적적인 것,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정상이다 — 요 3:3, 5-6, 8, 벰전 1:23.
- 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다 — 롬 10:12, 렘 33:3.